

「사소절(士小節)」을 통한 조선시대 가족윤리 고찰

A Study on the Family Ethics of Cho-Seon Dynasty in 「Sa So Jeol」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김순옥

School of Human Life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 Kim, Soon O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요약 및 논의 |
| II. 「사소절」의 사료적 의의 | 참고문헌 |
| III. 가족윤리의 내용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contents of the family ethics of Cho-Seon Dynasty in 「Sa So Jeol」 written by Deok Moo Lee in 1775.

The major findings on the family ethics of Cho-Seon Dynast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marital relationship must keep to be equal, although they have different characters in the personality and different roles in the family. And husband/wife has to respect each other, to try to do for the marital harmony, and to treat nicely to his/her spouse.
- 2) In the parents-children relationships, children should respect and support their parents sincerely while parents' lifetime and perform an ancestral sacrifice wholeheartedly after parents' death. And parents have the right and duty to educate their children. They have to teach their son to attend to his studies with diligence and teach their daughter to make efforts for the family and kin relationships. If parents or children are in fault, children should request to rethink the parents' fault to their parents earnestly and parents must also admonish their children with love.
- 3) In the sibling relationships, they have to show the fraternity each other. And the younger has to respect especially to elder brother.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한 개체로서의 자기존재와 사회적 인간관계의 질

서라는 두 영역을 결합시켜 주고 매개시켜주는 또 하나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이다(김장태, 1987: 257). 가정은 다른 집단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수성도 가지고 있지만 개인과 사회를 연결

하는 매개적인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가족윤리는 개인윤리, 사회윤리와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연결하는 매개적인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어서 가족윤리의 약화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약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듯 개인윤리적인 측면에서나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족윤리는 가정을 인간집단담개 지속시킬 수 있게 하는 상호규범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윤리의식이 약화되고 가족원간의 비윤리적인 행동 또한 많은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가족원간의 애정적인 배려는 점차 사라지고, 폭력도 흔하게 발생하며, 심한 경우 살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다. 이것은 가족원간의 관계에서조차도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가족원의 이기적인 욕구 충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은 가족관계의 도덕적 행동규범인 가족윤리에 의해 다스려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윤리는 가족성원 각자가 자신의 욕구 충족의 극대화를 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족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의 지혜 (김태길 외, 1991)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족윤리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지침을 탐색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족윤리는 개인과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가족윤리관의 정립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특히 현대가족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고빈번한 가족문제를 생각한다면 가족윤리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때에 윤리의식고취의 한 방안으로 유학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유교적인 가족윤리에서 현대적 의미를 찾는다면 오늘날의 혼탁한 가족윤리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유교적인 가족윤리 교훈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사소절(士小節)」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이념을 지닌 실학자(實學者) 이덕무(李德懋)가 저술

한 것으로서 남자, 여자, 아동이 갖추어야 할 윤리적인 지침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사전(士典)의 인륜(人倫)편에서는 남자성인들이 부인, 자녀, 친인척과의 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도리를, 부의(婦儀)의 인륜(人倫)편에서는 여자성인이 남편, 시부모, 동서들과의 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도리를 제시하였으며, 동규(童規)의 경장(敬長)편에서는 어린이들이 갖추어야 할 부모섬기기, 어른에 대한 예의 등을 기록해 놓았다. 기록된 윤리적 지침은 실제의 사실에서 참된 진리를 찾아낸다는 이념을 가지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인 행실을 조그만 데까지 알게 하여 착한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사회에서도 가족윤리의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조선시대에 이덕무(李德懋)가 儒學 (보다 구체적으로는 實學思想)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관계에서 지켜야 할 행동의 법도와 예절을 구체적으로 저술해 놓은 「사소절(士小節)」을 통하여 부부윤리, 부모자녀윤리, 형제자매윤리의 내용을 고찰하고, 그 기본적인 이념의 의미를 논의하여 현대 가족윤리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방법으로 이덕무(李德懋)가 1775년에 저술한 「사소절(士小節)」중에서 가족윤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내용을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소절(士小節)」의 역사적 자료로서의 의의를 살펴본 후, 조선시대의 가족원간의 윤리를 부부윤리, 부모자녀윤리, 형제자매윤리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II. 「사소절(士小節)」의 사료적(史料的) 의의

「사소절」은 조선의 영·정조시대의 이덕무(李德懋)에 의해서 1775년에 저술된 저서이다. 이덕무는 영조 17년인 1741년에 태어나 정조 17년인 1793년에

사망한 조선시대의 실학자로서 자는 무관(懋官)이요, 호는 형암(炯庵), 아정(雅亭), 청장관(靑莊館), 영처(嬰處), 동방일사(東方一士)이다. 그는 경사(經史)에서 기문이서(奇文異書)까지 통달하고 문장에 개성이 있어 이름을 떨쳤으나 서출(庶出)이라는 이유로 크게 출세하지는 못하고, 1779년에 규장각(奎章閣) 검서관(檢書官)을 거쳐 적성현감(積城縣監)이 되었다. 1791년에 사옹원주부에 올라 재직 중에 사망하였다. 이덕무는 글씨, 그림, 학문이 뛰어나 여러 권의 저서를 남겼는데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23권, 1987, 88), 그 중 「사소절(士小節)」은 후진 선비들을 위하여 만든 수양서로 8권 2책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수신(修身)과 제가(齊家)에 관한 교훈으로 시속(時俗)에 적절하게 설명한 것으로 사전(士典) 5권, 부의(婦儀) 2권, 동규(童規) 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소절(士小節)」은 발간된 시기의 시대적 특성과 사상적 배경, 그리고 기록된 내용상의 특징 때문에 역사적인 자료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시대적 특성으로 볼 때 「사소절(士小節)」은 조선사회의 주된 특징이 융성한 시기에 쓰여진 책이다. 흔히 조선시대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눌 때에 초기는 개국한太祖(1392)에서燕山君(1506)까지, 중기는 中宗(1506)에서 肅宗(1720)까지, 후기는 景宗(1720)에서 純宗(1910)까지로 구분하지만 (車河淳 외, 1995, 258 참조), 이러한 구분은 일반사 또는 종합사에 근거한 구분이기 때문에 특수사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특정분야에 대한 시대구분은 분야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 것이 더 타당하다. 가족윤리는 사회의 지배세력에 의하여 주도되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고에서는 조선시대의 지배세력의 변천에 근거하여 시기를 구분한 李樹健 (車河淳 외, 1995: 248-279)의 견해에 따르기로 한다. 즉 조선시대의 지배세력은 초기와 중기에는 사족(士族)이었으며, 후기에는 중인(中人) 세력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초기는 사족(士族)인 사대부들의 계층분화가 이루어진 재편기(再編期)로 14C 말부터 15C 초까지이며, 중기

는 가문과 개인적 자질을 갖춘 사족(士族)이 지배한 확대기(擴大期)로 15C 중부터 18C까지이고, 후기는 양반사회가 동요되고 중인층이 성장한 해체기(解體期)로 19C부터 20C 초까지이다. 그런데 재편기(再編期)는 그 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고려의 비유교적인(非儒教的)인 제도가 주자학적(朱子學的)인 체제와 의식으로 대체되어가는 시기로서, 가족의 윤리는 고려의 특징이 많이 잔재되어 있다. 그리고 해체기(解體期)에는 상공업의 발달로 상공인과 중인층의 신분이 향상되고 농민의 항쟁이 일어나는 등 새로운 시민계층이 등장하면서 사족계층은 몰락하여, 가족윤리는 근세적인 규범으로 전환된다. 즉 조선 초기인 재편기와 조선 후기인 해체기의 가족윤리는 각각 고려와 근세의 가족윤리의 과도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특유의 가족윤리는 15C 중부터 18C까지인 확대기(擴大期)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시대에 저술된 「사소절(士小節)」은 조선시대 가족윤리에 대한 규범을 잘 반영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면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의 불교를 대신하여 유교가 지배적 위치를 차지했는데, 조선시대 전체를 통해서는 성리학(性理學), 예학(禮學), 실학(實學)의 순서로 전개되었다. 그 중 실학은 경세치용(經世致用)학과, 이용후생(利用厚生)학과, 실사구시(實事求是)학과로 나뉘었는데 이덕무(李德懋)는 실학의 실사구시학과이다. 실사구시학과는 경서 및 금석(金石), 전고(典故)의 고증을 위주로 하는 학파로서 (李佑成, 1978: 6)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려 하고, 공리공론(空理空論)이나 형이상학적인 것보다는 실제생활과 밀접한 실용을 강조한다. 따라서 흔히 지적되고 있는 유교의 형식주의나 엄숙주의로 인한 공론적 특성을 최소화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생활을 위한 실용적인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소절(士小節)」의 내용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큰 예의의 실행은 사소한 예절을 닦음으로써 가능하다고 하여, 실생활과 결부된 사소한 예절을 깨닫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실사구시(實事

求是)의 이념 하에 남자, 여자, 어린이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규범이 되는 법칙을 적어놓았다. 특히 사전(士典)과 부의(婦儀)의 인륜(人倫)편과 동규(童規)의 경장(敬長)편에서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인 행실을 조그만 데까지 알게 하여 착한 삶이 되게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로서 사리를 알고 깨닫고 생각하고 실천할 점을 여러 가지 면에서 제시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III. 가족윤리의 내용

「사소절(士小節)」에서는 “나라의 풍속이 과거를 중히 여기고 예의를 소홀히 하는 나쁜 폐단에 연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윤리 기강이 없어져버리는 것이니, 모든 군자는 마땅히 마음을 써야 할 것이다 [此皆由於國俗重科擧, 而疏禮防, 末流之弊, 以至倫紀消亡, 凡百君子, 其宜動心]” (士小節¹⁾, 士典, 人倫, 125)고 하면서 “인륜의 관계는 비록 죽는 환란에 이르더라도 인정을 두텁게 하는 데 힘써 각박한 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人倫之際, 雖至死亡患難, 務敦厚, 而戒刻薄也]” (士典, 人倫, 126)고 하였다. 즉 윤리 기강을 위해서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의식 중의 하나로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을 들 수 있는데, 이 의식은 윤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가족원간의 윤리 의식이나 행동이 올바르면 그 의식이나 행동은 사회적 인간관계에도 확대되어 모든 인간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가족윤리를 고찰하되, 가족의 핵심적인 인간관계인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부부간의 윤리로는 부부관계의 시작인 혼인시의 윤리와 혼인 후 남편과 아내로서 지켜야 할 윤리를 살펴보고, 부모자녀간의 윤리로는 자녀가 부모의 생존시과 사후에 지켜야 할 도리와 부모가 자녀에 대해 행해야 주요 임무인 자녀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형제윤리에 대해서는 서

로가 지녀야 할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부부윤리

1) 혼인시의 윤리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부부이며, 부부는 혼인에 의해 비로소 탄생된다. 옛사람들 역시 배필을 사람을 낳는 시초가 되고 만복의 근원이 되므로 혼인의 禮가 바르게 되어야만 만물이 이루어져서 천명을 다하게 된다고 하여 가정을 형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배우자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사소절(士小節)」에서는 “무릇 사위와 며느리를 고르는 데는 덕과 행실을 먼저하고, 가정의 법도와 문벌을 그 다음으로 볼 것이다 [凡擇婿婦德行爲先, 家範門閥次之, 若無德行]” (婦儀, 人倫, 253) 라고 하여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집안의 재물보다 개인의 덕행과 가정의 법도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세상의 풍속에 따라 딸을 시집보내자면 그 혼수를 마련하느라고 많은 돈과 재물을 써야 하는 까닭에 - 윤리와 기강이 이로 인해서 땅에 떨어지니 매우 한심스러운 일이며 [只緣世俗, 嫁女資裝, 多費錢財, - 倫紀以之墜地, 可勝寒心]” (士典, 人倫, 120-121), 謝肇淛(명나라 사람)의 말을 빌려 “혼사에 재물을 논하는 것은 마침내는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망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실로 요즈음 세상의 병폐를 바로 맞춘 것 [謝肇淛曰, ‘婚而論財, 其究也, 夫婦之道喪’ 此語, 切中時病]” (士典, 人倫, 121)이라고 하여 당시의 세태를 한탄하였으며, “사람들이 혼인을 할 때, 간혹 그 많은 재물을 탐내서 몸에 탐이나 병이 있는 사위나 며느리를 취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스스로 거세를 해서 환관이 되는 것과 같다 [人家婚姻, 或有貪其富饒, 而取殘病之婿及婦者, 是與自宮, 而爲宦官同]” (士典, 人倫, 121)고 하여 재물을 탐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또한 혼인 풍속에 있어서 신랑 집의 주도적인 역할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세상 풍속에는 딸을 시

1) 앞으로는 ‘사소절’이라는 저서명은 생략하겠음.

집보낼 때 반드시 찬반을 극히 풍성하고 사치스럽게 차려보내서 시집 사람들을 먹이고 - (이는) 경박하고 화사한 풍습이니, 신랑 집에서는 마땅히 이를 엄히 금지할 것이다 [世俗嫁女必俱饌, 極其豐侈, 饋于婿家 - 皆浮靡之習也, 婿家當痛禁之] (婦儀, 服食, 223)에서 알 수 있다.

2) 남편과 아내로서의 윤리

(1) 공경(恭敬)과 화순(和順)

“부부가 화목하여 즐겁게 사는 것은 가정의 행복이다 [內外和樂, 家之福也]” (婦儀, 動止, 231). 따라서 부부는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데, 남편은 “가정의 근본을 잡고 있는 사람으로서 힘써 화순한 기풍을 쌓아 가족을 인도하여야 한다 [操家枋者, 務積和順, 以導家衆]” (士典, 御下, 168)고 하고, 부인의 자질 역시 화순을 첫째로 꼽고 있다. 즉 혼의(昏義)에서 설명한 것을 인용한 후 “그 내용이 부인의 도리로 아주 마땅한 것인데, 그 요점은 공순한 것과 화순한 것이다 [此章說婦道甚當, 其要順與和而已]” (婦儀, 性行, 198)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부인 모두 화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집안이 화락하면 비록 거친 밥을 먹고 나쁜 옷을 입더라도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할 것이요, 부부가 서로 미워하면 비록 비단옷에 진기한 음식을 먹더라도 그 근심과 탄식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室家和樂, 雖疏食惡衣, 不勝其歡娛, 夫妻反目, 雖綺服珍膳, 不任其愁嘆]” (婦儀, 人倫, 244)라고 하여 부부간의 화락을 강조하였다.

율곡 선생의 말을 빌려서도 부부가 화순하고 공순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즉 “반드시 남편은 화순하여 의리로 제어하고, 아내는 공순하여 바른 행실로 순종한 연후에야 집안 일이 잘 다스려질 것이다. - 남편은 아내와 서로 경계하여 반드시 중전의 버릇을 버리고 차차 예법에 맞는 행실에 들어가도록 함이 옳다 [必須夫和, 而制以義, 妻順, 而承以正, 然後家事可治也. - 須是與妻相戒, 必去前習, 漸入於禮可也.]” (婦儀, 性行, 199).

한편, 부부의 지속적인 화락을 위하여 지나친 친

밀을 경계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조대가(曹大家)가 여계(女誡)에 말하기를 - 부부간이 좋은 것은 몸을 마칠 때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지마는 방안에서만 함께 즐기고 지내면 드디어는 모독하는 행동이 생기고, 모독하는 행동이 생기면 말씨가 지나치게 되고, 말씨가 지나치면 방자한 짓을 하게 되고, 방자한 짓을 하면 남편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 남편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그치지 않으면 꾸짖고 나무람이 따르고, 분노를 그치지 않으면 매질이 따른다. 모름지기 부부된 자는 의리로서 화친해야 하고 은혜로서 화합해야 하는데, 매질이 행하여지면 거기에 무슨 의리가 존재하며, 꾸짖고 나무람이 있으면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는가? 은혜와 의리가 함께 다 없어져버린다면 부부는 서로 떨어지게 된다 [曹大家女誡曰, - 夫婦之好, 終身不離, 房室周施, 遂生烝瀆, 烝瀆既生, 言語過矣, 言語既過, 縱恣必作, 縱恣既作, 則侮夫之心生矣, - 侮夫不節, 謔呵從之, 忿怒不止, 楚撻從之. 夫爲夫婦者, 義以和親, 恩以好合, 楚撻既行, 何義之存, 謔呵既宣, 何恩之有? 恩義俱廢, 夫婦離行.]” (婦儀, 性行, 207-209)고 하여 지나친 친밀은 상대방을 방자하게 대하고 업신여기게 되어, 결국은 사이가 더 멀어지게 되므로 적절한 예의를 지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부부싸움은 부모나 자녀에게도 좋지않은 영향을 끼치므로 삼가하고 조심해야 함을 당부하고 있다. 즉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사나운 표정을 지어 서로 닦하고 원망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때를 당하면 부모는 근심하고 탄식하게 되고, 아들딸은 이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니 - 각각 스스로 누우치고 깨달아 화목하게 되도록 할 것이다 [夫婦之間, - 不可厲聲暴色, 互相咎怨, 當此之時也, 父母爲之憂歎, 子女爲之傷恨, - 各自悔悟, 以抵于和也.]” (士典, 人倫, 119).

(2) 상호존중과 경계

“아내를 실인(室人)이라고 일컬을 것이지 천형(賤刑)이라고 하여서는 안 된다 [妻曰室人, 不家曰賤刑]” (士典, 人倫, 111-112)고 하여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비하해서 부르는 것을 삼가도록 하였으며, 반면에 “남

편이 안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역시 부인의 부끄러움이다 [丈夫好內, 亦婦人之羞也] (婦儀, 動止, 231)라고 하여 지나침을 경계하였다. 또한 일부일처를 주장하여 이유없이 첩을 두는 것을 금하였는데, “선비 중에는 많이 들 까닭 없이 첩을 얻는 사람이 있는데, 가정의 도덕이 이로 말미암아 떨어진다 [士人, 多有無故納妾者, 家道由之以墜]” (士典, 人倫, 120)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부인들에게는 “남에게 시집가서는 정숙한 아내가 되어야 하고 [嫁人爲順婦淑妻]” (婦儀, 性行, 206-207), “투기하는 것은 추잡한 행실이니 [妬忌者, 亦是醜行]” (婦儀, 性行, 207) 삼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옛날의 부인들은 남편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혹은 올바른 도리를 권하고 혹은 바르게 경계하여 그로 하여금 잘못이 없는 데로 이끌어 들였다 [古之婦人, 夫子有過, 或勸道也, 或規警也, 使之納於無過之地]” (婦儀, 性行, 200)라고 하면서 당시의 부인들에게도 이러한 도리를 권하여 남편의 잘못을 경계하고, 남편을 바르게 인도하라고 하였다. 또한 “가장이 혹은 술을 좋아하면, 그 첩이나 아내된 사람은 마땅히 그 마시는 주량과 잔 수를 알아 두고서, 그로 하여금 적당히 마시고는 그만 두게 하고 - 예의를 잃거나 기운을 손상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 [家長若或嗜酒, 爲妾婦者, 當記識其飲量盃觴之數, 使之適可而止, - 使之失儀而損氣]” (婦儀, 服食, 224), “부인자신에게 병이 없고 아들이 있는데도 남편이 여색을 탐내어 널리 희첩을 두어 본성을 잃고 행실을 어지러뜨리며, 미혹하고 음란한 일에 빠져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고 집안의 지물을 탕진한다면 마땅히 힘써 정성스러운 뜻으로 두 번 세 번 간절하게 권하며 경계하고 울기까지 하여 [或吾無疾, 又有子, 而夫主貪色, 廣置姬人, 喪性亂行, 蠱惑迷溺, 不顧父母, 家產蕩敗, 當須務積誠意, 丁寧勸戒, 繼之涕泣]” (婦儀, 性行, 200-201) 남편을 감동시켜 남편이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시부모나 남편을 대하는 마음과 행동에 대하여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남편의 성품이 비록 사남 계 조급하더라도 부딪쳐 격하게 하고 이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다만 마땅히 그들의 뜻을 받들고 공손하게 복종하여, 그들로 하여금 감동하여 불쌍히 여기게

하고, 그 기운이 부드러워지기를 기다려 전번의 잘못을 대강 말하되, 역시 모릅지기 기쁜 낯빛에 부드러운 말 소리로 하면 능히 뉘우치고 깨달아서 차차 온화하고 상서로운 데 이르지 않겠는가? [舅姑夫主, 性雖狂躁, 不可觸激, 而有勝心, 但當姑與之承順, 使之感憐, 俟其氣和, 略言俄者之過失, 亦須怡色柔聲, 則能不悔悟, 漸至於和祥耶?]” (婦儀, 人倫, 247)라고 하여 공손한 마음과 부드러운 말로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도록 하였다. 무조건 참으라고만 하지는 않았다.

아내의 또 다른 도리로 “선비의 아내는 집안의 생계가 가난하고 궁핍하면 약간 살아갈 도리를 마련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안될 것이 없다 [士人之妻, 家計貧乏, 稍營生理, 未爲不可]” (婦儀, 事物, 259)고 하여 생계에 대한 협조적인 태도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욕(利慾)에 고질이 되어 각박한 일을 많이 행하면 현숙한 행실이 아니라고 하여 이재(理財)에 지나치게 밝음 또한 경계하였다.

(3) 겸손(謙遜)과 묵과(默過)

남편이나 아내 모두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남편은 “아내가 재주와 지혜가 있어도 남에게 이것을 자랑하여서는 안되고 [妻有才慧, 不可向人誇之]” (士典, 人倫, 120), “새로 결혼한 부인 역시 남에게 남편의 재주와 현명함을 과장해 자랑하여서는 안 된다 [新婚婦不可向人誇張夫主之才賢]” (婦儀, 言語, 212).

자랑을 금하는 것과 더불어 과오를 드러내는 것도 삼가라 하였는데, “남을 만나서 내 처자의 재능을 자랑하는 것과 내 처자의 과오를 드러내는 것은 - 떳떳한 도리에 어긋나기는 마찬가지다 [逢人, 夸張我妻子之才能, 與暴揚我妻子之過失, - 反其常則一也]” (士典, 御下, 167)라고 한 글귀에 잘 나타나있다.

(4) 부부유별(夫婦有別)하나 동등(同等)

조선시대에는 남편과 아내를 흔히 하늘과 땅에 비유하여 왔는데, 이덕무(李德懋) 역시 하늘과 땅에 부부를 비유하여 부부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늘과 땅이 비록 높고 낮더라도 그 만물을 길러내는 공은 한 가지이다 [殊不和天地雖云高下, 其化育之功一也]” (士典, 人倫, 119-120). 그러나 “남

편과 아내가 비록 동등하다고 하더라도 강하고 부드러운 분수를 어겨서는 안 된다 [夫妻縱曰齊體, 剛柔之分] (士典, 人倫, 119-120)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기는 하나 구별된다는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2. 부모자녀 윤리

「사소절(士小節)」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간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며(이덕무, 1993, 25), 잘못이 있을 때는 서로 훈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부자 형제간에 만약 잘못이 있다면 자제는 강력히 간할 것이요, 부형은 엄히 꼭 훈계하고 책망할 것이다 [父子兄弟, 若有過失, 子弟可以諫諍, 父兄可以訓責, - 毋宿藏怨怒]” (士典, 人倫, 114). 왜냐하면 “부형에게 잘못이 있을 때 그 자제들이 우선 일 없이 넘기려고 잘 간하지 않으며, 자제에게 잘못이 있을 때 그 부형이 어물어물 덮어두고 잘 경계하지 않으면, 이는 남같이 여겨 소홀하게 하는 것 [父兄有過, 姑息而不能諫, 子弟有愆, 因循而不能戒, 是物而疎之也]” (士典, 人倫, 114-115)이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녀 각각이 지켜야 윤리는 다음과 같다.

1) 자녀의 부모에 대한 윤리-효(孝)

부모 생존시와 사망후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생존시에 섬기는 도리

부모와의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달라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일에 대한 악명은 가히 받을 수 있으나 효도하지 않는다는 악명을 받으면 곤란하고, 남의 험뜯는 말은 변명할 수 있으나 부모의 말씀은 변명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저버리는 일은 그래도 할 수가 있으나 부모의 마음을 저버리는 일은 한 가지도 할 수 없다. 부모를 섬기는 사람은 마땅히 항상 조심하여 공경해야 한다 [他端之惡名可受, 不孝之名難受, 他人之毀言可辨, 父母之言無辨, 失他人之心, 猶有可爲, 失父母之心者, 無一可爲, 事父母者, 固當兢兢業業]” (士典, 人倫, 116-117)고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그 도리를 다 해야 한다고 했다. 예

를 들어 부모를 위해서라면 습속(習俗)을 초월해서라도 일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부모가 배고프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지혜와 힘을 헤아려 이를 힘쓸 따름이요, 장사를 하는 것도 좋고 남의 집 고용살이를 하는 것도 좋다 [親飢如之何? - 量其智與力, 爲之而已, 販可備亦可]” (士典, 事物, 173-174)고 하였다.

부모를 위한 효자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 자녀의 도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명나라 사람 효자 추본성은 “그의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살림을 돌보지 않았으나 - 아버지를 봉양하였고 [其父酒人也, 不治生產 - 以養之]” (士典, 人倫, 117)(118), 송나라 “임원수는 어머니를 섬기는데 효성을 다 하였는데, 늙은 어머니가 병이 나면 그 병이 생긴 이유를 스스로 밝혀 내어 - 약을 쓰면 반드시 효력이 있어 비록 유명한 의원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任元受, 事母盡孝, 自言老母有疾, 其得疾之由, - 故用藥必效, 雖名醫不治也.]” (士典, 人倫, 118-119).

한편,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아버지에게는 두려움을 나타내고, 어머니에게는 버릇없이 구는 경우가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말고 부모를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고 했다. 즉 “아버지에게는 공경하여 두려워하고 위축되나, 어머니에게는 사랑하기는 하지만 버릇없이 구는 사람이 있는데, 두려워하고 위축되면 사랑하는 정성이 부족해지고, 버릇없이 굴면 공경하는 마음이 행해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부모를 섬김에는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아야 한다 [或有敬父而畏縮, 愛母而放弛, 畏縮, 則愛或未孚, 放弛, 則敬或未行, 故事父母, 敬也愛也, 均焉而已矣]” (童規, 敬長, 303)는 것이다.

(2) 사후에 섬기는 도리

효자가 부모를 섬기는 일은 그 부모가 살아 계실 때 만이 아니라 부모 사후에 까지 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① 장사지내는 도리(喪禮)

“부모상을 입고 있을 때는 의심적은 일을 피해야 하는데 [以實居喪避嫌疑之旨]” (士典, 勤慎, 84-85), 의심적은 일이란 네 가지를 의미한다. 즉 “먹고 노는 일, 여색을 좋아하는 일, 음악을 즐기는 일, 시를 짓는

일이다 [食色聲詩]”(土典, 勤慎, 84-85).

“부모상을 입고 있을 때 경서의 시를 인용한 곳을 읽게 되면 마땅히 빼놓고 소리내 읽지 않을 것이며 [居喪, 讀經, 凡引詩處, 當闕而不作聲]”(土典, 教習, 105). “부모상 중에 시를 읽는 일은 어린이조차도 못하게 할 일 [居喪童子, - 誦詠詩詞, 不使之放縱禮節]”(童規, 動止, 281)이라고 하였다. 또한 “부모상을 입고 있을 때는 화려한 내용의 책을 읽지 말고 다만 상례나 제례에 관한 책을 읽으며, 책 읽는 소리를 좋아하여서는 안 된다 [居喪, 不可讀浮華之書, 只讀喪祭禮, 而不可好其聲音]”(土典, 教習, 105)고 하여 부모상 중에는 오로지 부모가 돌아가셔서 슬퍼하는 마음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까닭없이 조상의 무덤을 잘 파 옮기는 사람은 어버이를 편케 하려는 것이나 도리어 어버이에게 거역하는 것 [無故而善遷塚墓者, 是欲求安親, 而反逆親者也]”(土典, 勤慎, 90-91)이므로 함부로 부모의 산소를 헐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② 제사지내는 도리(祭禮)

“제사란 깨끗하게 갖추기를 힘쓰고 슬픈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 군자의 제사는 집의 형세에 따라 알맞게 갖추라 [夫祭者務潔齊, 而致哀誠也, - 故君子之祭, 稱家之有無, 不計其貧富]”(婦儀, 祭祀, 257-258)고 하였으며, “제사를 지낼 때 처음에는 조심하다가도 나중에 소홀히 하지 말 것이며 [行祭, 勿勿兢兢, 而終忽忽也]”(土典, 勤慎, 82-83), “제사에 참여하였을 때는 오랫동안 서있어서 비록 피로하더라도 한쪽 발을 치우치게 내뺌거나 하품을 하여서는 안 되고 [祭祀, 久立雖勞, 不可偏任一足, 而勿欠也]”(土典, 勤慎, 83), “비록 손님이 있더라도 함부로 말하고 웃지 말 것 [雖有客, 勿放言笑]”(土典, 勤慎, 83)이라고 하여祭祀에 있어서는 슬퍼함과 정성을 다함이 중요하며, 제물(祭物)의 많고 적음을 구애되지 말 것을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2)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윤리-자녀교육

“인심이 날로 나빠지고 세상의 도의가 날로 무너지는데, 이는 어린이를 가르치지 않은 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故人心日溺, 世道日敗, 自不教童子始也]”(童規, 事物, 311-312)고 하여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조심하고 공경하는 도리를 갖추듯이 부모도 자녀에게 부모로서의 훈육을 잘 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부모의 사랑 또한 마땅히 깊이 그 아들의 성공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니, 경솔하게 아들이 대약의 이름을 받게 하지 말아야 한다. - 부모된 사람이 그 아들을 꾸짖고 심지어는 의리를 끊는 형편에 이르러 - 아들로 하여금 안으로는 마음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는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여 - 이는 천하에 가장 심한 형벌이다 [而父母之慈者, 亦當深念成就厥子, 勿輕致子以大惡之名也, - 噴其子, 至爲決絕之形, - 致子內無以爲心, 外無以爲人, - 此天下之極刑也]”(土典, 人倫, 116-117)라고 하여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아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집을 망치고, 딸을 가르치지 않으면 남의 집을 망진다. 그러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죄 [不教男子, 亡吾家, 不教女子, 亡人家, 故教之不預, 父母之罪也]”(婦儀, 教育, 237-238)라고 하여 아들 딸 모두를 가르쳐야 할 것을 시사하였다.

(1) 자녀교육의 방법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손자, 아들에 대하여 자(字)를 부르지 말 것이며 [祖父母父母, 於孫與子, 勿字呼也.]”(土典, 人倫, 111), “내 아들을 가아(家兒)하고 일컬을 것이니 미돈(迷豚)이라고 하여서는 안 되고, 딸을 여아라고 일컬을 것이니 소교(所嬌)라고 말하여서는 안 된다 [稱吾子曰家兒, 不家曰迷豚, 女曰女兒, 不家曰所嬌]”(土典, 人倫, 111-112)고 하여 자녀를 존중할 것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자녀를 가르칠 때는 아들과 딸에 대한 사랑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즉 “남자와 여자라는 점은 비록 다르나 한 핏줄을 타고난 골육임을 한 가지니, 천륜의 사랑이야 어찌 후하고 박함이 있을을 용납하겠는가? [男女雖殊, 骨肉則一也. 天彝之愛, 豈容有厚薄?]”(土典, 人倫, 120-121)라고 하여 일찍이 남녀 차별없는 교육태도를 중시하였다.

구체적인 자녀 훈육 방법에 있어서는 꾸지람과 사랑이 지나치면 안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구절들에서 잘 나타나 있다.

“어린아이가 비록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함부로 꾸짖지 말고, 마구 때리지 말 것이며 [卑幼, 雖有過失, 勿亂罵, 勿散毆]” (土典, 御下, 166), “아내나 자식에게 비록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빠른 소리로 욕하거나 꾸짖어서는 안 되며 [妻子, 雖有不如意, 不可疾聲責罵]” (土典, 御下, 166), “어린아이가 잘못이 있을 때는 그 경중을 따라서 돈독히 경계하거나 엄격히 책망할 것이지, 큰 소리를 지르거나 사나운 낯빛을 나타내거나 번거로운 말로 되풀이하여 야단을 치거나 조리에 맞지 않게 마구 들볶아서는 안 된다 [卑幼有過, 隨其輕重, 敦戒而嚴責之, 不可疾聲厲色, 煩言複語, 顛倒, 錯亂]” (土典, 御下, 170-171)고 하였다.

꾸지람과 사랑이 지나치면 안 되는 이유는 “너무 엄격하면 사나운 자식은 떨어져나가고, 너무 사랑하면 약은 자식은 방자하게 되기 [太嚴則悼子離, 太愛則黠子肆]” (土典, 御下, 165) 때문이다. 따라서 “아버이 된 도리는 엄격한 것과 사랑하는 것의 중간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爲人親之道, 嚴與愛之間乎?]” (土典, 御下, 165)고 하였다.

또한 자녀가 잘못하였을 때는 잘못된 그 사실에 대해서만 그 자리에서 위엄을 갖추고 차근 차근 타이르되, 다른 사람 앞에서 공공연하게 꾸중하는 것을 삼가하라고 하였다. 즉 “자제나 하인들이 우연히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마땅히 그 자리에서 경계하고 책망하고, 가슴 속에 오래 담아 두지 말 것이다. 혹 다른 날 또 다른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먼저 잘못하였던 것까지를 죄다 들어서 길게 늘어놓아 나무라서는 안 되며 [子弟婢僕, 偶有一過, 當卽地戒責, 勿留胸中, 或於他日又作他過, 不可歷提前過, 叟叟督責也]” (土典, 御下, 166), “자제가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하나 차례로 타이르고 경계할 것이지, 절대로 지나간 뒤에 성내지 말 것이다 [子弟有過, 循循勸戒, 切勿過時恚怒]” (土典, 御下, 165)고 하였다. 또한 “아들 딸 아우 조카 며느리 첩들이 만약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면대해서 순순히 훈계하거나 혹은 간절히 책망하고 비록 종아리를 때리더라도 마땅히 위엄과 사랑이 아울러 나타나야지 결코 정을 끊어버리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고, 또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게

하지 말 것이다 [子女弟姪婦妾輩, 若有罪過, 隨其輕重, 諄諄面戒, 或切責之, 雖至楚撻, 須當嚴愛并至, 不可出決絕之言, 亦不令他人知之]” (土典, 御下, 165-166)고 하여 지나간 뒤에 이전에 잘못된 사실까지 세삼스럽게 야단치거나 부모의 화난 성질에 못이겨 함부로 자녀를 꾸짖지 말라는 것이다.

한편,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즉 “여자의 여러 가지 재능은 오로지 어머니에게서 배우게 되고, 그 아버지 된 도리는 때로 시서(詩書)와 도사(圖史)를 가지고 설명하고 경계하는 데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 남자 역시 어머니의 가르침에 의지한다. 그렇다면 어머니 된 이의 직책이 또한 중요하고 크지 않으랴? [- 專憑母教, 其爲父道, 不過時取詩書圖史, - 亦資母訓, 然則爲母之識, 不亦重且大乎?]” (婦儀, 教育, 241)라고 하여 딸은 물론이고 아들도 특히 어려서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강조하였다. 물론 아버지의 역할은 어머니보다는 훨씬 적지만 아버지도 자녀교육에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함축하고 있다.

(2) 자녀교육의 내용

“한번 생각을 하는 데도 다 법칙이 있어야 하고, 한번 행동을 하는 데도 다 격식이 있어야 한다. - 어려서 표준이 없으면 자라서 더욱 잘못되는 법이다 [- 念慮威有則, - 動作威有式 - 童無準, 長益仄]” (童規, 273-274)라 하여 어린 시절의 올바른 가정교육이 성장 후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어린아이를 가르쳐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열거해놓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아들 딸을 가르치는 데는 먼저 음식 탐내는 것을 금하라 [教子女, 先禁食食]” (婦儀, 教育, 238)고 하였다. 왜냐하면 “이 탐욕으로 인하여 사치가 생기고, 사치로 인하여 흠칠 마음이 생기고, 흠칠 마음으로 인하여 독하고 사나운 마음이 생기기 [因食生奢, 因奢生盜, 因盜生悍]” (婦儀, 教育, 238) 때문이다.

그리고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나타내는 사랑은 아들 딸 구별이 없어야 된다고 하였지만, 실제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아들 교육에 대해서는 이퇴계(李退溪) 선생의 말을 빌려서, 그리고

딸의 교육에 대해서는 하의려(賀醫閻) 선생의 말을 빌려 설명하였는데, 즉 “퇴계 선생이 말하기를 돌아가신 어머니 정부인 박씨는 - 여러 아들이 차차 자라 자 곧 멀고 가까운 곳에 가서 글을 배우게 하고 - 문학과 예술을 일삼게 할뿐만 아니라 [退溪先生曰, 先妣貞夫人朴氏, - 及諸子漸長, 則令就學於遠邇, - 不惟文藝是事]” (婦儀, 教育, 236-237)라 하여 아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글, 문학, 예술 등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딸 교육의 주요 내용은 행동거지나 집안 식구들 간의 화목을 위한 것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의려(賀醫閻) 선생이 여러 딸들을 가르친 열두 가지 조목은

1. 침착하고 자상하며 공손하고 부지런해야 한다.
2. 제사를 받들 때는 엄숙히 하여야 한다.
3.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효도로써 받들어야 한다.
4. 남편을 예의로써 섬겨야 한다.
5. 동서를 화목으로써 대접하여야 한다.
6. 아들 딸을 바른 도리로써 가르쳐야 한다.
7. 비복을 은혜로써 어루만져야 한다.
8. 친척을 공경으로써 대접하여야 한다.
9. 착한 말을 기쁜 마음으로써 들어야 한다.
10. 간사하고 망령됨을 정성으로써 경계하여야 한다.
11. 길쌈을 부지런히 힘써야 한다.
12. 재물을 아껴 써야 한다.

[賀醫閻先生, 教諸女十二條, 曰安詳恭勤, 曰承祭祀以嚴, 曰奉舅姑以孝, 曰事丈夫以禮, 曰待娣姒以和, 曰教子女以正, 曰撫婢僕以恩, 曰接親戚以敬, 曰聽善言以喜, 曰戒邪妄以誠, 曰務紡績以勤, 曰用財物以儉]” (婦儀, 教育, 237)이다.

3. 형제윤리

부부나 부모자녀의 윤리에 비하여 형제윤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덜 되어 있다.

기록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형제간에는 우애가 있어야 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해야 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율곡 선생의

벼슬이 정승인 데도 불구하고 그의 중형(仲兄)이 본래 일이 서툴러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율곡 선생을 불러다 일을 시켰는데 이를 지켜본 율곡의 문생(門生)이 어찌하여 자제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지 않으시느냐? 형님께 자제의 예를 취하시니, 이는 곧 지나친 공경이 아니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율곡 선생은 말하기를 “부형의 앞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공경하는 것이 예의다, 벼슬의 높고 낮은 것을 논할 것이 아니다 [父兄之前, 過恭禮也, 位之高下, 非所論]” (士典, 人倫, 113)라 하여 형에 대한 동생의 공경은 당연한 것이라 하였다. 이는 형제지간에 있어서 동생은 형에게 아버지에게와 같은 예를 갖추어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나의 아버지와 숙부들이 다 생존하실 때는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시어 5형제분이 함께 한 집에 모이시면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 - 화목한 기운이 가득하였다 [我諸父俱在時, 篤於友愛, 五昆季同會一堂, 怡怡如也, - 和氣譔然]” (士典, 人倫, 127)고 하고, “형제사이에는 비록 작은 물건이라도 가히 고루 가져야지 독차지하여서는 안 된다 [兄弟之間, 雖微細之物, 可均而不可專]” (童規, 事物, 314)고 하여 형제간에는 우애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IV. 요약 및 논의

1. 요약

이덕무(李德懋)가 유학(儒學) 특히 실학(實學)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실생활과 결부된 구체적인 법도를 저술해 놓은 「사소절(士小節)」을 통하여 조선시대 가족윤리의 내용에 대하여 고찰한 바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힘써 지켜야 한다. 둘째, 부부간의 윤리로는

- 1) 혼인할 때는 재물이나 혼수를 탐하지 말고, 배우자의 덕행과 가정의 법도를 중요시해야 한다.
- 2) 남편과 아내는 모두 화순(和順)한 기풍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공경해야 하며 화목하도록 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예를 갖추어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남 앞에서는 서로를 지나치게 자랑하지도, 잘못을 들추지도 말아야 한다.

- 3) 남편은 강하고, 부인은 부드러워 남편과 아내의 특성은 서로 다르지만 그 공은 같으므로 부부의 관계는 동등해야 한다.

셋째, 부모자녀윤리로는

- 1) 부모자녀간에는 서로 사랑이 있어 부모에게 잘못이 있으면 자녀는 부모로 하여금 그 잘못을 고치시도록 간청해야 하며, 자녀에게 잘못이 있으면 부모는 자녀를 엄하게 훈계해야 한다.
- 2) 자녀는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는 항상 조심하고 공경하고 부양해야 하되, 아버지와 어머니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슬퍼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고,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지내되 분수에 맞게 제수를 준비하여야 한다.
- 3)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훈육해야 한다. 자녀로 하여금 올바른 법도를 습득하게 하는 첫째는 욕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들 딸을 가르치는 사랑에 있어서는 차별없는 태도를 지녀야 하지만, 아들 딸의 교육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즉 아들에게는 학문에 힘쓰도록 하고, 딸에게는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가족 및 친족관계에 힘쓰도록 하였다. 또한 자녀를 훈육할 때는 함부로 꾸짖거나 때리지 말고, 그 때 그 때 문제되는 행동에 대해서만 위엄을 가지고 타일러야 하며, 꾸중과 사랑이 적절해야 한다.

넷째, 형제자매윤리로는 형제간에는 서로 우애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해야 한다.

2. 논의

조선사회는 고려시대의 불교를 대신하여 유교가 지배적인 사상으로 자리하였는데, 조선왕조 전체를 통해서는 성리학(性理學), 예학(禮學), 실학(實學)의 순서로 전개되었다(황의동, 1995, 336-337).

조선시대 초기의 성리학은 봉건적 가치관으로 군

(君)과 신(臣), 부(父)와 자(子), 부(夫)와 부(婦), 주(主)와 노(奴), 반(班)과 상(常)은 각자가 지니는 명분에 따라 상명하복(上命下腹)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리학은 봉건적 사회의 기반으로서 불가결한 신분적 지배질서를 관철시킴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제도가 보편화되고 충효의 이념이 절대시되었다. 즉 명분과 인륜을 강조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발전시켜 나갔다(최완기, 1997: 167). 가장은 소가족인 경우에는 부(父)나 형(兄)이, 대가족인 경우에는 조부, 백부 등 세대와 연령이 높은 남계적장(男系嫡長)이 되었으며, 가장은 존장권, 호주권, 친권, 종자권, 재산권 등을 행사하였고, 가장을 중심으로 한 부자, 형제, 부부간에는 자(慈), 효(孝), 제(悌), 열(烈)의 가족윤리가 절대적으로 이행되어야 했다(심윤홍, 1994: 65).

또한 가족제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의례가 주자가례를 좇아 특히 양반사회에서 엄격하게 준행되었다. 관례는 일반 민가에서는 점차로 이를 따로 행하지 않고 혼례에 포함시켰으나 혼례는 인간의 중대사였으며, 상례와 제례는 조상에 대한 숭배인 동시에 효도의 연장이었기에 엄격히 행해졌다(성균관대학교 국사편찬 위원회, 1987: 150-151).

그러나 성리학의 지나친 관념론화의 결과로 예학(禮學)이 발달하였다. 양반들이 신분질서의 안정에 필요한 의례를 중요시하면서 예학이 발달하였던 것이다. 예(禮)란 철학적 탐구를 통해 얻어진 리를 구체적 현실에 문물제도로써 드러내는 것이며,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리가 곧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에는 실천주체로서의 인간 본성을 보존하고 인욕을 억제하는 향내적(向內的) 극기가 있고, 실천방법으로서 향외적(向外的) 복례(復禮)가 있다(이문주, 1982: 70). 예학의 발달은 가족과 종족 상호간의 상장 제례의 의식을 바로잡고 유교주의적 가족제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점도 있으나, 지나치게 형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사립간의 정쟁에서 빌미로 이용되는 폐단도 적지 않았다(최완기,

1997: 200-201).

예학 다음으로 나타난 '실학(實學)'은 여러 학파로 구분되어 다양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실학사상은 직접적으로는 성리학자인 이율곡 등으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남상락, 1971, 25). 아울러 실학은 비판정신, 과학정신, 근대지향의식, 실천의식, 민족의식, 그리고 민중중심의 세계관을 강조하였다(최완기, 1997, 214).

이덕무(李德懋)가 저술한 「사소절(士小節)」은 실학사상 중에서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이념에 입각한 것으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사소절(士小節)」은 전반에 걸쳐 인도주의, 평등주의, 실질주의 등을 주장하고, 교육에 있어서는 개인차를 존중하고, 생활지도에 있어서는 중용사상과 대인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주영애, 1997, 77). 「사소절(士小節)」의 위와 같은 점들은 현대사회의 가족윤리에도 귀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조선시대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인륜에 기본을 두고 있는 가족윤리의 이념은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상적 배경하에서 「사소절(士小節)」에 나타난 가족윤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부부윤리와 관련하여

부부는 가정의 기초단위이며, 동시에 가정을 다스리고 가사를 행하는 주체이다. 부부관계는 가정의 성립에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인생에서 누리는 모든 복락(福樂)은 부부가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부부간의 화락은 모든 복의 근원으로 이해된다. 또한 부부는 모든 규범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모든 복락의 근원인 부부관계의 시작과 근원이 잘못되면 모든 어긋남과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덕무(李德懋)는 부부윤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부부는 화순(和順)한 기풍을 지니고 예(禮)로서 서로를 대하여 친화(親和)가 계속되도록 해야 하며, 부부의 친화는 애정으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합부로 허물없이 가까이하여 드

디어 조롱하고 업신여겨서 못할 것이 없게 되게 하지 말고 예법으로 공경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른 유학자들처럼 부부관계에서의 예를 특히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특성에는 구별이 있으나 인격적으로는 동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부의 동등함과 더불어 구별되는 도리를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남녀관계에 대한 20세기의 담론인 '다르지 않은 그러나 똑같지 않은'이라는 이념과 같아 220여년 전에도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자녀윤리와 관련하여

이덕무(李德懋)는 부자간의 사랑, 자녀의 부모에 대한 조심 공경 부양,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올바른 훈육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조선시대 많은 유학자들의 견해 즉 부자간에는 부자자효(父慈子孝)를 통한 친화를 도모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사랑과 공경과 봉양 그리고 슬픔을 다하는 상례와 애경의 정성을 다하는 제례를 통하여 효를 다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잉태이전부터 부모 될 준비를 하고, 잉태하게 되면 태교를 행하고, 자녀가 자랄 때는 사랑과 위엄으로 훈육을 해야 한다(國譯 栗谷全書V, 聖學輯要. 正家, 1985; 國譯 栗谷全書VI, 擊蒙要訣. 事親, 1988; 금장태, 1987; 지교헌, 1993; 홍달아기, 1993)는 것과 일치한다.

이러한 부모자녀간의 사랑, 자녀의 부모 공경, 부모의 올바른 자녀 양육 등에 관한 내용은 오늘날의 부모자녀관계에도 반영된다면 바람직한 부모 역할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반사회적인 자녀행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정내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혈연관계이자 수직적인 상하관계이며, 부모는 자녀에게 조건없는 사랑을 주며, 아들 딸에 따라 적절한 내용의 훈육과 교육을 행한다. 이에 대해 자녀는 부모에게 효로서 답한다. 효는 가정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이지만, 이것은 확대되어 부모가 아닌 웃어른이나 국가에 대한 도리로도 해석된다. 그만큼 효가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효는 물질적인 봉양만으로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즉 부모의 뜻을 따르기도 해야 하고, 부모가

도리에 어긋난 일을 할 때는 간언(諫言)하는 것이 또한 효이다. 부모의 뜻이 의리(義理)에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부모의 뜻을 받드는 것이 당연하지만, 만약 부모의 뜻이 틀렸을 때에는 사리를 밝혀 깨우쳐 드림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효를 행하여 부모의 허물이 없도록 모셔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효의 연장으로 장례와 제례를 슬퍼함과 정성스러움을 다하여 행하되, 분수에 맞는 제물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혼인에 있어 혼수를 탐하지 말라고 한 것과 함께 오늘날의 호화로운 장지(葬地)나 혼수(婚需)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병리를 제거하는데 준거가 될 수 있겠다.

셋째, 형제윤리와 관련하여

형제관계는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혈연관계로 매우 친밀한 관계이며, 같은 부모에서 나온 동질성 즉 평등성을 지니면서도 연령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수직성을 지니 이중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경하는 형우제공(兄友弟恭)이 형제관계에서의 도리라고 하였다. 또한 형제간의 화목없이는 가정의 화목도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형제윤리는 부부윤리나 부모자녀윤리에 비하여 언급이 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족윤리의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다. 오늘날 형제간에 우애가 없고, 특히 재산으로 인하여 다툼이 많은 가정에서는 귀감으로 삼아야 할 내용이다.

한편, 조선시대 윤리사상의 핵심은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로부터 찾을 수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사소절(士小節)」에 나타난 가족윤리의 내용은 퇴계와 율곡의 가족윤리와 기본 이념을 같이 하고 있다. 즉 퇴계는 가족윤리의 근본을 효제(孝悌)에 두고, 부모자녀간에는 부당자(父當慈) 자당효(子當孝)해야 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효친(孝親)하고 순명(順命)해야 하며, 부부간에는 친화(親和)해야 하고, 형제간에는 서로 정성으로 공경하고 우애해야 하는 제우(悌友)를 강조하였다(금장태, 1987; 한명수, 1979). 또한 율곡 역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로 효경(孝敬)을, 부부간에는 화순(和順)을, 형제간에는 우애(友愛)를 강조하였다(國譯 栗谷全書, 聖學輯要

V. 正家, 刑內, 1985; 김오전, 1994; 김익수, 1992). 「사소절(士小節)」에서도 부부간의 화순(和順) 예(禮) 친화(親和)를, 부자간의 사랑, 자녀의 부모에 대한 공경과 부양,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올바른 훈육, 형제간의 형우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사소절(士小節)」에 나타난 가족윤리의 내용은 조선시대 가족윤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소절(士小節)」이 조선시대의 사회와 교육현실에 맞게 쓰여진 교육서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족윤리 규범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부부간에는 공경, 화순, 친화, 애정, 유별하지만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부모됨을 준비하고, 태교를 행하며, 사랑과 위엄으로 훈육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조심하고, 공경하고, 봉양하며, 형제자매간에는 우애를 지녀야 한다는 규범은 현대 가족윤리의 기본이 될 수 있겠다.

원래 가족은 일의 기축원리인 합리성보다 생명체의 기축원리인 윤리성을 더 중시하는 천륜공동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같은 여러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윤리적 가치보다 실용적 합리성을 정당화시켰고, 인문적 가치에서 실용적 경제가치로 이전시켜 사회 전부분을 개인중심의 실용성과 합리성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됨에 (이정덕, 박허식, 1999, 64) 따라 유교적인 윤리가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엄숙하다고 하여 그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왔다. 그러나 유교적인 덕목들은 부정적인 면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윤리의 뿌리를 자기수양에 두고 있는 점이나, 개인과 공동체간의 유익한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풍부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뚜 웨이밍, 1)는 잠재적 가치가 있기도 하고, 또한 유교의 상호주체적이며 더불어 산다는 개념의 공동존재론(송항룡, I-92)의 관점에서의 긍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소절(士小節)」에 나타난 가족윤리의 기본적 이념은 유교적인 윤리의 긍정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윤리의식이나 행동이 약해지고 있는 현대의 가족윤리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준거가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금장태(1987). 퇴계의 가정관. 퇴계학연구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 257-278.
- 2) 김오전(1994). 율곡의 가정윤리사상에 관한 연구 -「성학집요」 「정가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김익수(1992). 율곡의 가정윤리관과 현대 가정윤리. 율곡학 (율곡사상연구원), 4, 60-92.
- 4) 김태길, 심재용, 이용필(1991). 현대사회와 윤리. 박영사.
- 5) 남상락(1971). 한국 실학사상의 철학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1987). 동아출판사.
- 7) 뚜 웨이밍. 가족, 국가, 그리고 세계: 세계적 윤리로서의 현대 유학. 아산재단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1세기의 도전, 동양윤리의 응답, 1-25.
- 8) 성균관대학교 국사편찬위원회(1987). 교양한국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9) 송항룡. 현대문명 속에서의 유교의 존재론적 의미와 윤리적 가치에 대한 토론. 아산재단 창립 2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1세기의 도전, 동양윤리의 응답, I/88-94.
- 10) 심윤홍(1994). 조선시대사 논강. 교문사.
- 11) 이덕무 저, 김종권 역(1993). 士小節. 명문당.
- 12) 이문주(1982). 사계 김장생 선생의 예설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이우성(1978). 실학연구 입문. 일조각.
- 14) 이정덕, 박허식(1999). 한국 가족윤리변천사 IV. 대한가정학회지, 37(7), 45-68.
- 15) 주영애(1997). 사소절 부의에 나타난 주생활 관리에 관한 내용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1), 75-84.
- 16) 지교현(1993). 호산 박문호의 윤리사상. 한국사상가의 새로운 발견, 1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61-320.
- 17) 차하순 외(1995). 한국시대사 구분론. 소화.
- 18) 최완기(1997). 테마로 읽는 조선의 역사. 느티나무.
- 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5). 국역 율곡전서 V 성학집요.
- 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8). 국역 율곡전서 VI 격몽요결.
- 21) 한명수(1979). 현대사회에서의 전통윤리와 이퇴계. 퇴계학연구, 6, 5-24.
- 22) 홍달아기(1993). 율곡의 가정교육관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3) 황의동(1995). 한국의 유학사상. 서광사.